

결식아동 돕기위한 사랑과 나눔의 자선음악회 이번주 수요일 저녁에 열려



이번주 수요일(8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자선음악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제1남선교회 주최와 공흥사역위원회 후원으로 서울 모테트 합창단(지휘: 박치용 집사)과 소프라노 한나숙, 테너 이단열, 기타 장승호, 소마트리 오가 자선음악회에 함께 출연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30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자선음악회를 통해 조금씩 모은 성금과 기도로 우리 주변에서 고통 받는 결식아동들이 희망을 찾는 귀한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성금은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비치된 성금함에 성도들이 돕고 싶은 만큼 자발적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번에 모여진 성금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결식하는 학생들을 찾아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자선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답고 뜻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해 장선근 어린이 2차수술 잘 받아



우리교회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후원 사업을 지난 해 10월부터 한국심장재단과 협력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장선근 군을 세번째 후원자로 돕고 있다. 2004년생인 장선근 아이는 기능성 단심실로 태어났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살고 있는 아이의 부부는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한국심장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주님의교회가 수술지원비 전액을 후원하게 되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04년 5월, 1차 수술과 05년 5월 6일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마지막 3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을 마치면 단심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5월 29일 3부 예배때 참석한 이 내 식구는 예배후 문동학 담임목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수기도를 받았다. 아버지 장준오씨는 '감사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밝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전/도/예/배

지난주일 4부예배 처음으로 드러져 하모사를 위한 첫번째 시간



'오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4부 예배 그 첫번째 시간이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지난 주일 4부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300명이 약간 넘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지개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예배를 시작하기전에 스태프들이 모여서 무대 위에서 묵상의 기도를 올렸다. 먼저 악속(이종익 곡)의 드럼과 기타와 신디의 잘 어울어진 연주로 시작되어 문동학 담임목사가 인사를 드린 뒤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70대 할

머니를 환영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초청가수 이두진 집사가 '밤배', '내 영혼이 은총입어', '양떼를 떠나서'를 부르며 중간 중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주님의교회 드라마팀에서 '행복'에 관한 몇 개의 소묘라는 주제의 드라마를 공연했는데,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 뒤 문동학 담임목사가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짚어보며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채움에서 오는 만족은 행복일 수 없으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많은 예들을 떠올려보고 가지지 않았음에도 오는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암시해주었다. 장근희 자매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을 멋지게 불러 뜨거운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며 첫번째 4부예배가 마쳐졌다. 예배당을 나와 로비에는 떡과 음료의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참석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다. 앞으로도 매주 열리는 4부 예배를 통해 많은 하모사(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커다란 전도의 물결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지난 주 토요일 5월 새가족 환영회 열려



지난 토요일(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5월 새가족 환영

회가 열렸다. 초대된 새가족과 구역장들이 같이 식사를 한 다음 본격적인 환영회가 진행되었다. 최남영 집사의 해금연주가 있는 후 7교구 3구역의 김기창 성도의 간증이 있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였는데 한 성도는 등록하니까 일원이 된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하였고, 어떤 성도는 등록을 하지 않고 7년을 다니다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국수봉사 등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영어예배 외부강사 초청해



5월 29일 영어예배에서는 외부강사로 Bobby Coronato 목사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 : Bobby Coronato(YWAM 간사)

본문 : 히브리서 11:1절

제목 : "walking by faith"

내용 :

1. "Believe what you cannot see"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눈에 보이는 아무런 현실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라.

2. "No fear" 두려움 없이 행하라

: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살고 있어도 1,2초의 두려움이 사탄으로 인해 사로잡힐 때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잃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 보다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분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실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3. "Believe big" 큰 믿음을 가지라

: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추려 하지 말라. 더 큰 믿음으로 그분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라. 그리고 그 분을 강하게 믿고 기대하라. 그분이 주실 큰 선물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선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분을 믿을 때 위엿것, 큰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설교했다.

6월11일부터 남포교회에서 아버지학교 열려



4월 23일부터 시작한 천호성결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가 5월 21일 은혜 가운데 마치고 5월 30일 해단식 겸 부부세미나가 열렸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지난 5주간 매주 토요일에, 많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함께 모여,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5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호열, 김광호, 김낙균, 김명훈, 김성규, 배익환, 이병권, 오치민, 장준, 지성호 집사 등 10명의 아버지들이 지원자로 참석하였고, 박중순, 김주옥

집사가 스텝으로 섬겼다.

아버지학교에 참석한 지원자 아버지들이 배우고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자손에게까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나쁜 영향력은 당대에서 단절시키고,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관계 중심적 아버지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내와 먼저 친밀해져야 한다. 좋은 남편이 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며,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들은, 6월11일부터 남포교회에서 시작하여 5주간 계속되는 아버지학교에 지원하면 된다. 아버지학교에 지원할 성도나 관심이 있는 분은 가정사역팀의 박중순 집사(011-253-2621)에게 연락하면 된다.

(1면에 이어서)

지난 주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 가져



문동학 담임목사는 인격적인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현실에서 체험해야 하며 우리가 싸

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율법적 기독교이므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도전하고, 연구하고, 싸우고, 만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새가족 중 병환으로 고생하는 한 성도를 위해 그 성도의 아픔과 고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주시고 은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같이 드렸다.

마지막으로 문동학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회의 경계에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염시키고 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전하였다.

다같이 손을 잡고 찬송하며 서로를 축복한 후 5월 새가족 환영회가 기쁘게 끝이 났다.

양육 클래스

중국어 성경반 소개



十四是十四, 四十是四十

十四不是四十, 四十不是十四

統口令([Tongkouling]-발음하기 어려운 말을 빨리 외우는 놀이)을 따라 하는 학생들의 이마에서 진땀이 흐른다.

김삼화 집사의 청아한 목소리를 따라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 애문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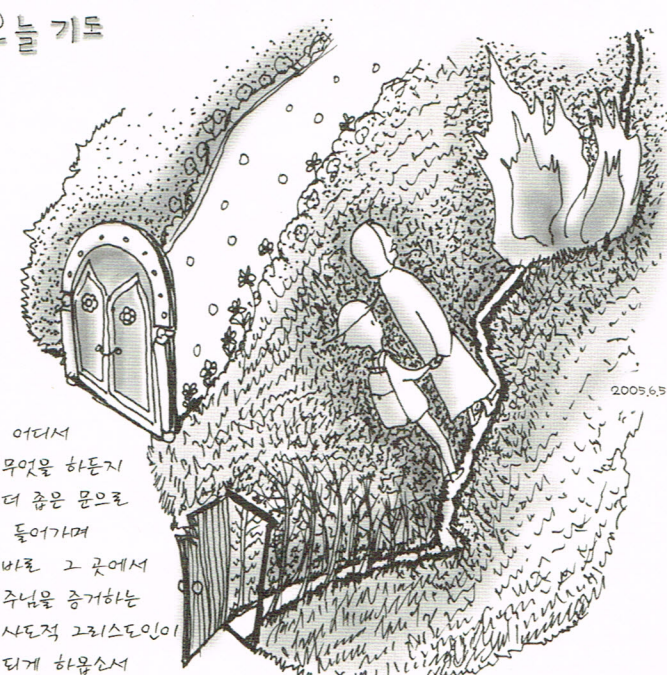
성조의 높낮이와 권설음 같은 어려운 발음을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지만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교사로부터 "참 잘했어요!"하는 칭찬을 받는 학생들도 나온다.

학생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과 직장인, 주부, 사업가, 정년 퇴직한 성도등 여러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중국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까지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한데 모여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김삼화 집사는 중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주고 외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의 자세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주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강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중국어 개방되고 복음이 조금씩 심어지고 있지만 중국어 성경반을 통해 복음 선교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으며 오늘도 중국어 성경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 기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더 작은 문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2009.6.5

2여선교회 소식

2여선교회는 월례회 시간을 첫째 목요일에, 둘째 수요일엔 루디아의집 산책봉사로 모임을 갖는다.

지난 2일엔 신록이 절정인 청계산에서 6월 월례회로 기도 모임을 가졌다.

담당 교역자인 윤은성 목사는 강의 스케줄로 인해 함께 하지못해 몹시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했다. 비가 올지 말지 아리송한 날씨였지만 그래도 14명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정말 오랜만에 박수치며 1시간 가까이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니 바로 그곳이 성령님이 뜨겁게 임해

하신 마가의 다락방 같았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와,교회,긴급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각자의 가정과 돌씩 짚어 중보기도를 마치니 시간은 어느새 1시 가까이 다다랐다. 슬슬 시장기가 느껴질 무렵 오점덕 권사가 맛있게 썬 찰밥과 박순희 회장이 준비한 김밥,떡, 과일등은 우리를 너무행복하게 해서 마치 천국의 끝자락을 맛본것 같았다. 영육이 충만하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 가을에 다시 한번 더 기도모임을 갖고 참석못한 회원들도 권유하여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자고 다짐하며 자꾸만 손짓하는 청계산을 뒤로 한채 아쉬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소년사역본부 학원선교 소개



청소년사역본부에서는 정신학원을 모델로 한 또 다른 학원선교를 시작하였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성중학교에 매 주 화요일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반을 구성하여 상담자원교사들을 파송하고 학기별 2회씩 청소년사역자를 초청하여 학년별 집회를 열게 된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상담봉사자가죽이 함께 수련회를 가지며 내적치유전문가를 초청하여 문제학생치유를 시도해볼 계획이다.

지난 화요일(31일)에는 주님의 교회 홍민기 목사를 초청하여 1학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풍성중학교의 시청각교육실에서 열린 이 강연은 학년별로 총3회가 진행될 것이다. 일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사역본부에서 시도하게 되는 이 상담반 운영과 강연 계획은 2006년 2월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어와나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어와나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안 전도사와 어와나 불티2팀에 있는 이재유 어린이(8세), 그리고 어머니(함혜련집사)가 만나 인터뷰를 했다.



유영안: 안녕~ 재유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 주간 잘 지냈니?

이재유: 네~ 전도사님, 어와나 오는 날 기다렸어요~

유영안: 그랬구나~ 재유는 어와나 오는 날을 무척 기다리는구나. 이제 두 달째로 접어들었는데, 어때. 재미있니?

이재유: 네~ 게임시간이랑 핸드북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교제시간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는 것도 재미있구요!

유영안: 그렇다고 한니까 전도사님도 너무나 기쁘네 우리 재유는 어떤 시간이 제일 재미있니?

이재유: 게임시간이요! 저번에 핀 세우기 게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어와나에서는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하니까, 사이좋게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엔 반칙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젠 모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게임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들어오는 아이가 끝까지 게임을 마치도록 친구들이 같이 "끝까지! 끝까지!!"하고 응원해주는 모습

도 너무나 멋졌어요!

유영안: 그래. 우리 재유가 게임시간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서로서로 돕고, 응원하면서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신대~

이재유: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유영안: 그럼, 핸드북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니?

이재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게 좋아요!

유영안: 어렵지 않니? 말도 어렵고, 긴 구절도 많은데..

이재유: 아, 처음엔 많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연습해서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은 선생님이랑, 엄마랑 설명해주셔서 알 수 있어요!

유영안: 그렇구나~ 재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뭐니?

이재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 잘 외우죠? (웃음) 어디 갈 때 꼭 핸드북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외워요. 어디 놀러갈 때도 꼭 가져가구요.

유영안: 정말 기특하구나! 재유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 속에 새기고, 전하는 멋진 예수님의 불티가 되기를 바라요! 어와나 클럽의 구호가 "내 친구를 그리스도에게로"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이재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유영안: 잘 알고 있구나. 재유는 그렇게 할 수 있니?

이재유: 네! 우리반에 제 짝궁 민규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요.

유영안: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보자~. 우리 재유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재유: 전 치과선생님이 되어서 엄마,아빠랑 우리 피아노 선생님 아픈 이빨도 고쳐주고, 세상의 이빨 아픈 사람들 많이많이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전 도하고 싶어요.

유영안: 우리 재유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될 거야! 어머니께 몇가지 여쭙게요. 재유가 클럽미팅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머님: 네~ 생일파티 갔다가도 어와나 시간되면 얼른 뛰어나오고, 재유가 좋아하는 영화보러 가자고 해도 어와나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성화예요~ 굉장히 좋아해요. (웃음)

유영안: 그렇군요. 재유가 어와나 클럽미팅에 나오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조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친구들과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게임시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즐거움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요.

유영안: 어와나 클럽 리더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머님: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유와 그리고 모든 클럽 아이들이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반짝 반짝 별뿔뿔처럼 빛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 응답받는 자녀

PTP(학부모, 교사기도회) 계속되고 있어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PTP(학부모, 교사기도회)가 이번주 토요일(11일)과 차주 토요일(18일)은 특별히 자녀교육세미나로 집중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바른 훈계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자녀교육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드러질 계획이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PTP 스케줄

6월 11일 자녀교육세미나 I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6월 18일 자녀교육세미나 II "바른 훈계가 있는 가정"

6월 25일 PTP 봄 학기 마지막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예배

말씀: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 교육(12)

창세기 32:24-30 "하나님과의 씨름"

유치부 다솜 찬양대 소개



주일 아침 유치부실에 가면 선생님들 다음으로 가장 먼저 유치부에 와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이 있다.

바로 다솜 찬양대 어린이들이다. 6살 어린이들은 아직 글씨를 읽을 수 없어 아쉽게도 다솜 찬양대는 아버지를 인양수 있는 7살 어린이들

로만 구성되어 있다. 예배 시간에는 가끔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게 마련인 어린 아이이지만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사뭇 진지한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치부의 다솜 찬양대가 드리는 귀한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솜 찬양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유치부 예배를 환

징검다리 바자회

고등부에서는 교육부 주일인 6월 19일(셋째 주일)에 1층 정문 앞마당에서 '징검다리' 바자회를 연다. '징검다리'라는 이름은 경제적인 이유로 웃음을 잃은 친구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서 행복한 모습을 되찾아주겠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의 표어를 '우리만 웃을 수 있나요?'로 정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기존의 바자회와는 다른 새로운 장터를 만들고자 '아

름다운 가게'를 참고하는 등 여러 가지 흥밋거리를 마련했다.

'자기희생이 없이는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충실히 드러내고자 문동학 담임목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기증을 요청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흔쾌히 기증을 약속해주어 이번 행사가 더욱 풍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온 물품 중 일부는 1층 게시판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선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의 호응이다. 편한 마음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징검다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물품 등을 부탁을 하였는데 기꺼이 여러 물품들을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벌써 이들로 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증 받았는데 비록 중고품이기는 하나 그 가운데 '디카' 등의 물품은 벌써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주변 이웃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참여해주기를 부탁해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또래 친구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고

등부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조건에 가장 합당한 수혜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식비나 등록금 등 학업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며, 진행 후 경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바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이다. 유용한 물건임에도 현재 집에서 잘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여 풍성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부 주일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모쪼록 알찬 장터가 되도록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청년부와 영어 예배 사역팀

기아대책 자선달리기 참여할 예정



내일(6월 6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기아대책기구에서 개최하는 한톨 자선 달리기 행사에 청년부와 영어예배 사역팀에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 올림픽 공원 한얼광장에서 개최되는 이 자선 달리는 참가비 15,000을 후원하면 행사당일 입고 달리게 될 티셔츠를 받고 참여하게 된다. 참가신청자는 3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올림픽 마라톤이었던 황영조 선수와 정태수, MC 윤정수 씨도 함께 달리기 참여하게 된다. 기아대책기구는 국제적인 NGO 단체로 떡과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56개국 2200여명의 스태프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며 매해 2만 여명의 참가자가 함께 달리며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후 1시 30분 청년예배가 드려지는 지하 중강당 앞에서 예배 전후로 언제든지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다.

유년부 달란트 잔치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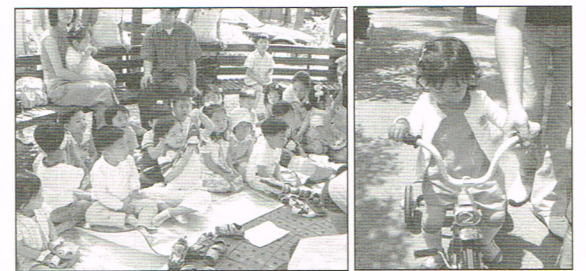
지난주일(5월 29일), 12시부터 유년부에서 달란트학교가 진행되었다. 풍선아트반은 매직풍선으로 '모자 만들기'를 하였고, 종이접기반에서는 색종이로 코알라 만들기를 하였다. 예쁜 글씨반에서는 기본 글씨체를 매직으로 연습하여

쓴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였다. 연극반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배경과 기타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요리반에서는 '생크림과자 만들기'를 하였다. 영어성경반에서는 성경에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을 영어를 써보고,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 배우는데 이것은 4주에 걸쳐 진행이 된다.

매 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되는 달란트학교는 아이들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의 어린이 문화를 새롭게 가꿔 나가고 있다. 쏟아지는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어린이를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어린이 문화의 부

재를 교회학교에서 다시금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부모들과 아이들의 관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으면 한다.

유아부 야외예배 드려



지난주일 유아부에서는 야외예배를 드렸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찬양도 하고 예배후에는 미니 자전거 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었던것은 색다른 주일 설교였다.

피부색이 달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설교 내용에 맞추어 이태리어를 하시는 선생님, 영어를 하시는 선생님, 일본어와, 불어를 하시는 선생님 네분이 나와서 설교를 도와 주었다.

예쁜 인형들을 저마다 가지고 나와서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하고 외국어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듣지는 못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어느때보다도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듯 매우 즐거워 했다.

정신여고 예랑 캠프 열려



예랑 캠프(예수사랑캠프의 줄임말)는 1987년부터 불광동에 자리하고 있는 팀수양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92년까지는 정신여고 1학년올, 93년부터는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예랑 캠프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1-2절 말씀이었다. 이는 헌신의 변화된 삶이 주제로,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에서 여고생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1기(1반~5반) 2기(6반~10반) 3기(12반~15반)로 세차례 나뉘어 5월23~24일, 25~26일, 30~31일에 행해졌는데, 30일(월) 오후 5시부터는 주님의 교회 2반과 영락교회 2반의 기도어머니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녁식사와 사진찍기가 끝나고 전학생이 강당에 모여 인형극, 담임선생님들로 구성된 깜짝쇼가 펼쳐져 환호와 웃음바다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도어머니들도 용기를 내어 준비해간 율동과 찬양으로 학생들과 같이 부르며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음은 각반 모두 운동장에서 원을 만들어 서로 돌아가며 돌씩 안고 기도해주는 루치아 인사였는데 싸늘한 공기, 자연의 냄새, 밤하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는 그야말로 은혜의 기도시간이었다. 다음은 경건한 세족식으로 씻김을 받는 아이들이나 씻겨 주는 어머니들 모두 스스로 낮아짐으로 사랑과 헌신의 섬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교감되는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예랑을 다짐하며 기도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니 정신여고생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인데요." "발을 씻겨 주니 아이가 계속 울었어요." "품에 안고 기도해주니 '어머니 기도해 주신대로 꼭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은 예랑 캠프를 끝마치고 감감한 길을 걸어 나오면서 은혜 충만으로 상기된 기도어머니들이 나눈 대화내용들이다.